



야로슬라브 을사

주한 체코 대사

몇 주 후면 한국 교위대표단이 한-EU 정상회담을 위해 체코 수도 프라하를 방문한다. 여기서 27개 유럽연합국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합의되면 수년간 쌓아온 한-EU 관계는 더욱 굳어질 것이다. 특히 올해 EU의 창국인 체코로선 한국과의 관계증진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체코와 한국의 수교 역사는 19년 정

리 미사리의 지지가 그 배경이었던 것 같다. 체코 최초 대통령인 미사리는 크레인의 가까운 친구로서 여운형과의 면담을 추천했다. 본인 스스로도 미국 망명 시절인 1차 대전 때 체코 독립운동을 했고 가장로 한국을 방문한 경험도 있어 국동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여운형과 가자 장군과의 몇몇 일화는 기록에도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국의

군은 임시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특별 선물이었던 은화병을 받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도 언급돼 있다.

가자 장군과 한국 대표의 접촉은 정치적 성격이 강했지만 1920년 초연 실질적 협력이 이뤄져 체코의 무기와 탄약이 한국군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무기가 체코슬로바키아 군에서 한국군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상당 수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군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기들은 1920년 10월 창산리 전투의 대승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군 침수 후 한국과 체코 관리들 간 연락은 끊어졌고 재개되는 데는 수년이

## 청산리전투 도운 체코... 인연 더 넓고 깊게

도지만 양국이 첫 정치적 만남을 가진 것은 90년 전인 1919년 1월이다. 당시 신생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군대 6만 병력은 몇 달째 수천 km 떨어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볼셰비키 군과 전투 중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유럽의 신생 독립국 탄생에 중대한 국제적 배경이었던 윌슨 미 대통령의 평화원칙 14개조, 즉 민족자결선언은 아시아 지도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여운형은 1918년 말 상하이에서 윌슨의 비공식 특사 찰스 크레인을 면담하고 몇 주 후 체코슬로바키아 군대와의 협의를 위해 브라티보스트로 향한다.

체코 리들러 가자 장군은 여운형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푸는데,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젊은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동정심이나 체코 대통령 토마시가

혈의 이후 여운형이 상하이로 돌아가려 했을 때 가자 장군은 그의 안전을 걱정해 장갑열차에 흑근 요세프 한츠를 포함한 체코 군인을 배치, 그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체코의 한국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조연가 클레슬로바는 "한 독립투사의 안전을 위해 행한 이 조치는 특별히 곤대했다"고 말하고 있다.

몇 달 뒤 가자 장군은 체코슬로바키아로 퇴각하기 전 상하이에서 잔판 머물면서 한 번 더 여운형과 한국임시정부 대표 인사들을 만났다. 1920년 1월 가자 장군의 한국군 지원 기사는 상하이 관 독립신문에 실렸다. 가자 장군은 당시 이광수가 운영하던 독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독립을 쟁취할 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3·1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가자 장

군였다.

이런 인연에 대해 양국 관계는 최근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국 임화들은 체코 관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체코 노쇼비체 현대 공장에서 제작된 한국 자동차는 체코 시장에 보급되고 있다. 한국 관광객들은 프라하의 역사적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서울에서는 체코 뮤지컬 '헛과 클레오파트라' 등이 공연된다. 90년 전 인연을 맺은 양국 관계가 더욱 확고히 뿌리내리길 바란다.

※야로슬라브 을사, jr. 주한체코대사는 지난해 9월 한국에 부임했다. 을사 대사의 저서로는 '아프리카 역사', '문학과 예술사', '짐바브웨 조각가 4세대(2007)',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역사(2008)' 등이 있다.